

■ 연구원 소식

○ 3차 역사문학기행 안내(11월 30일)

일 시 : 2019년 11월 30일(토) 09시~18시

장 소 : 경남 거창양민학살사건 추모공원, 남원 실상사

내 용 :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의 아픔, 그리고 해원

대 상 : 회원 및 시민 30명

참가비 : 20세 이상 1만원

2019년 3차 역사문학기행이 오는 11월 30일(토)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행은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 <겨울골짜기>와 만나는 거창 지역입니다. 서슬 퍼렇던 80년대 빨치산과 국군의 양민학살 문제를 주제로 발표된 이 작품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역사문학기행에 참가하시기 전에 김원일 작가의 작품 <겨울골짜기>와 먼저 만나고 오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답사 당일 요약본과 줄거리, 작품해설 등이 제공됩니다.

11월 30일(토),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앞 주차장에서 9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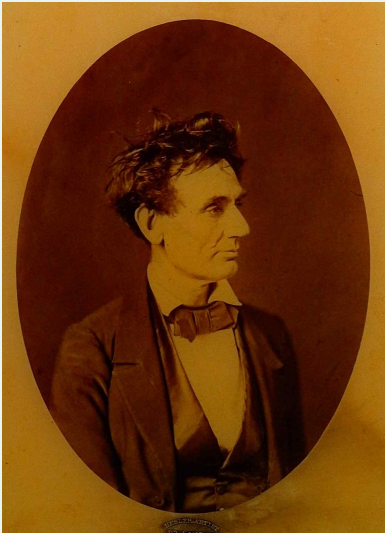
○ 3차 역사문학기행 세부 일정

일 정	내 용	비고
09:00~11:30	전주대학교 -> 거창사건역사교육관 이동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506
11:30~13:00	교육관 관람 및 해설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실상사 이동 및 관람	
16:00~17:30	실상사 -> 전주대학교	

■ 발로 쓰는 미국 풍경, 여덟 번째 이야기

현장 사진으로 보는 링컨(1)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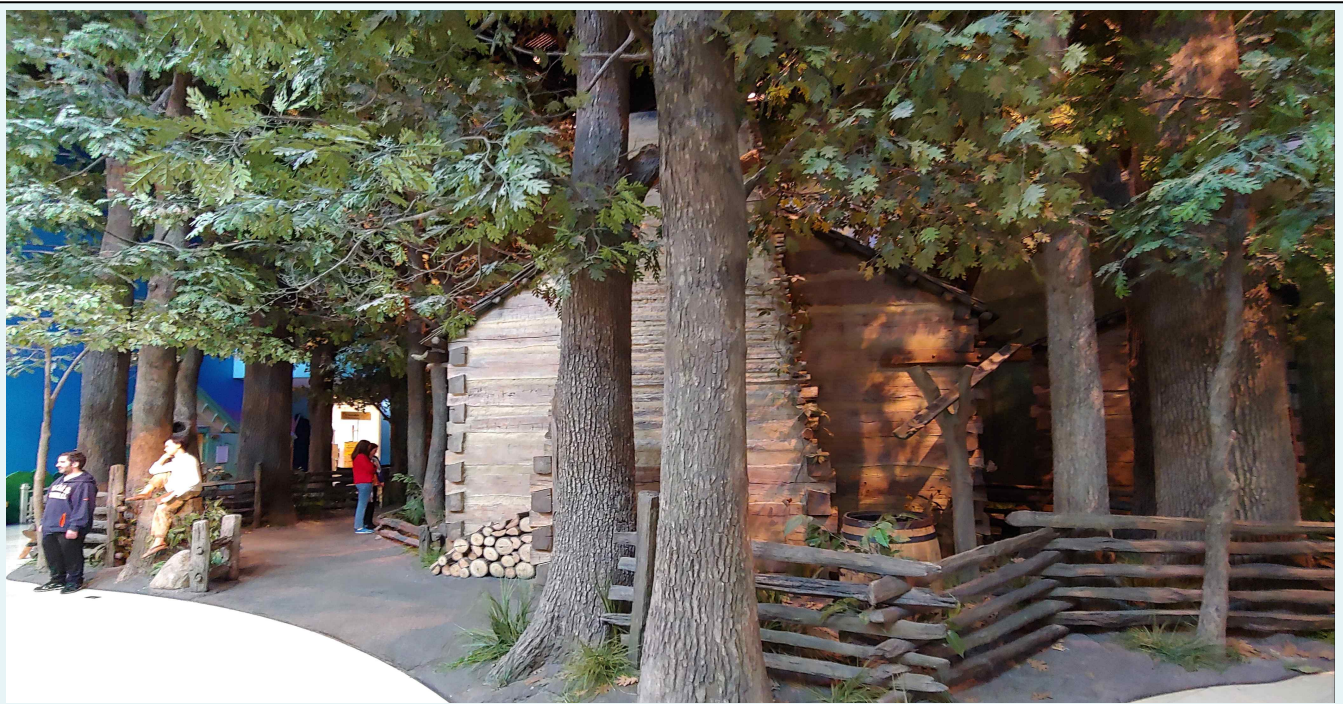
링컨의 젊은 시절 모습



스프링필드 박물관에 재현해 놓은 링컨의 오두막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세계적인 인물로서 그의 이야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의 구체적인 일생보다는 사진을 중심으로 링컨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아버지 토마스 링컨과 어머니 낸시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링컨이 태어난 집은 초라한 통나무 오두막이었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이었음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링컨이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의지 할 데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혼한 새엄마 사라 존스톤은 마음씨 착한 여성이었다. 그녀 덕분에 링컨은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링컨은 다양한 경험을 얻고 싶었고 자기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해가 긴 계절에는 바깥 지붕 아래에서 쭈그리고 기대앉아 책을 읽었고 밤에는 난롯가에 앉아 장작 불빛으로 책을 읽었다.



박물관에 덜렁 오두막만 지어놓지 않고 주변도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꾸며놓았다.



재현된 링컨의 오두막 내부와 책 읽는 링컨의 모습, 당시의 오두막 내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무렵 링컨이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는 「천로역정」, 「로빈슨 크루소」이 있는데,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하게 되는 등 광대한 지식의 지평을 열어주었다. 링컨에게 있어서 독서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습득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아버지는 어릴 적 링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아버지 덕택에 표현력과 연설을 배운 셈이 되었다.

서구의 위인들 대다수가 그러하였듯이 링컨 역시 성경을 탐독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에밀 루드비히가 쓴 「링컨의 일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교회는 다른 통나무집들과 마찬가지로 통나무로 지은 집이었고 목사는 겨울에 난로 불빛의 도움으로 성경을 낭독했다. 그리고 신도들은 시편과 찬송가를 노래했다. 집에서도 많은 기도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예식보다는 그가 사람의 마음에 관해 직접 행한 탐구가 그에게는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폭 넓은 경험을 쌓고 직관이 발달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를 만나보았더라면 그에게서 시인의 자질을 발견했거나 그가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로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실제로 그러했다. 그는 시를 여러 편 지어서 친구들에게 낭독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자기가 읽은 것에 관해 깊은 생각에 골몰하기도 했던 것이다.

링컨은 1830년 일리노이 주로 이사하였고 그 이듬해에 뉴살렘의 사업가 덴톤 오푸트에 의해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링컨은 청년 시기에 뱃사공, 가게 점원, 토지 측량사, 우체국장,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사실 링컨의 정식교육은 여러 명의 순회교사들을 통해 받은 18개월이 교육 받은 것이 전부이다. 그는 독학으로 공부하였고 독서에 주력하였다. 그의 책 읽는 습관은 결혼해서까지도 이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결혼 후, 어느 날 저녁 아내 메리가 불을 지펴야 하느냐고 네 번이나 물어 보았는데도 책 읽기에 몰두하느라 대답이 없자, 그녀는 장작으로 링컨의 머리를 톡톡 쳤다.

<다음에 계속>

한국판 교육칙어(教育勅語) 선포 (1968년 12월 5일)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ニ関スル勅語)는 1890년부터 1948년까지 사용된 일본의 교육방침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칙어'라 줄여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교육에 관한 칙어'이다.

일본제국 헌법 시기 본토와 강점한 식민지 학교에서 칙어를 암기시켜 일왕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도록 했다. 학생이 아닌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칙유가 있었고 군인칙유에선 상관의 명령이 일왕의 명령이라며 상관과 일왕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칙어는 군인칙유와 더불어 1948년 6월 19일에 중의원에서 배제, 일본 참의원에서 실효가 결의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8년, 이를 모방한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한국판 교육칙어”라 부르며 조롱했다.

40대 부터 60대까지의 한국인이라면 지금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학교에서 국민교육헌장 전체를 외우게 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모두 393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국민교육헌장은 인간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기능보다는 교육이념에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심체였다.

1967년 대선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삼선개헌과 장기집권의 욕망을 구체화시키며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했는데 당시 한국사회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거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일관했다. 야당은 물론 당시 지성계를 대표하던 『사상계』, 『씨알의 소리』, 『창자고가 비평』 등도 국민교육헌장 제정을 반대하는 글이 없었다.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민교육헌장은 국정지표의 바탕이었다. 그러나 국민교육헌장은 새로운 국민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기에 박정희 사망 이후 급격히 형식화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근근이 반공교육의 필요성으로 유지되던 국민교육헌장은 1994년 이후로 폐기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지표의 위상 격하가 아니라 냉전과 고립된 민족주의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다섯 번째 이야기 “원효굴과 용피굴”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삼성단 | 산신과 칠성, 독성이 비를 맞을세라, 안개에 젖을세라 삼성단은 석굴 안에 자리를 잡았다.

마애불의 오른쪽으로, 커다란 동굴 안에 날개를 활짝 펼친 누각은 삼성단三聖壇이다. 산신과 칠성 그리고 독성을 모셨는데, 기이한 형태로 이루어진 석굴 안에 자리를 잡아서일까? 단출하고 소박한 누각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석상이나 탕화도 없이 단청마저 올리지 않았지만, 예상 밖으로 장중한 맛까지 풍긴다. 제단 위 오른쪽에 '계룡산신위 鷄龍山神位'라고 새겨진 고졸한 빗돌 하나가 작은 몸을 숨겼다. 오래전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낸 흔적이다. 앞쪽의 단풍나무도 말 못할 무슨 간절한 기원이 있는지, 자꾸만 빗돌을 향해 다가서며 몸을 굽힌다. 암벽 위의 부처손도 앞다투어 손을 활짝 펼친다.

삼성단 바로 우측의 작은 굴이 '원효굴'이다. 겨우 사람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좁은 입구로 굴 안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만큼 제법 넓고 편안하다. 이는 신원사를 창건한 보덕화상의 『열반경』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온 신라의 원효대사가 잠시 머물러 수행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자연 굴 법당이다. 들어가 보면, 처절한 고독 속에서 진리를 향해 정진했던 수행자의 냉철한 마음가짐이 서늘한 기운으로 느껴진다.

원효굴 한쪽에 지금도 신비로운 자연 불단이 고아하게 남아 있다. 알맞은 천연석을 주워다가 쌓아 만든 불단으로, 돌덩이 하나하나에서 진지한 마음가짐과 정성이 느껴진다. 견진스님이 최근에 이 불단을 발견하고, 여기에 작은 부처님 여러 분을 지금의 모습으로 모셨다고 한다. 견진스님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단다. 원효굴 안에서 바라보이는 마애불 위쪽의 봉우리가 그것인데, 마치 여인의 젖꼭지처럼 생긴 봉우리 두 개가 포개졌다. 다음은 견진스님의 말이다.

“저 산줄기 꼭대기가 연천봉이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관음봉이 솟았지요. 여기서 바라보면, 마치 엄마 젖꼭지처럼 생긴 저봉우리가 연천봉 자락의 제일 아래쪽 아십니까? 그러니 이 굴에 앉아 보면, 하늘 닿은 연천봉으로 내려온 관음봉의 관음보살께서 저봉우리를 통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피를 엄마 젖가슴처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효굴이 그만큼 영험한 곳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앞의 샘물이 바로 『정감록』에 나오는 ‘계룡석정鷄龍石井’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견진스님이 계룡석정으로 추정하는 돌샘은 원효굴 바로 앞에서 솟는다. 옛날 원효스님이 이곳에 거처하면서 소중하게 쓰셨을 샘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보호시설을 해 놓고 부처님께 올릴 물로만 아껴 쓴다. 맑고 상쾌한 물이 샘 안에 흐뭇하게 고였다.

그렇다. 사람이 입을 닫으면 귀가 열리기 마련이다. 이때 자연은 비로소 여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살며시 들려준다. 돌돌 솟는 샘물소리에는 이곳을 거쳐 간 수행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스치는 바람소리에는 인간의 역사를 일구어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비탄이 새어 나온다.

이름 모를 풀벌레가 들려주는 저 이야기는 무슨 내용일까? 나나니벌 한 마리가 바위를 타며 맴돌고, 청벌 두 마리가 그 뒤를 따른다. 끊어졌던 피꼬리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다. 원효굴 상단의 암벽 표면에 우단일엽초가 무성하다.

이곳이 비범한 자리임을 암시하는 우단일엽은 고란초과에 속하는 양치식물이다. 가까운 부여 고란사의 고란초와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고왕암의 자랑이다. 푸르른 우단일엽은 해우소로 향하는 입구의 왼쪽 바위 위에서 더 큰 군락을 이뤘다.



우단일엽초 | 하나된 마음을 단엽으로 표출하였으니 그 기상이 푸르게 돋았다.

우단일엽은 자신의 의지와 갈망을 단 하나의 이파리로 표현한, 그래서 독특하게 생긴 식물이다. 눈을 감으면 한겨울의 삭풍에 굴하여 스러질 것 같기에, 우단일엽은 저토록 하나의 눈만 부릅떴다. 여러 가지 소원을 빌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단 하나의 소망을 세상 바깥에 앞사귀로 내밀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중생들의 애타는 손짓이 저렇게 떼거리로 표상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분위기에 편승한 담쟁이 녀굴 하나가 인력의 법칙을 끝내 거부하고, 우단일엽과 함께 바위 표면에 완강히 달라붙었다.

'용피굴'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태자 용이 7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하는 굴이다. 이 굴은 요사채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서늘한 냉기를 이용하여 암자의 장독들을 보관한다.

그러나『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용은 의자왕과 함께 압송되었다. 따라서 국운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무렵에, 용이 이곳으로 잠깐 피신하여 임존성 등에서 끝까지 항거하던 백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때 신라에서는 당연히 용의 뒤를 끊임없이 추적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 굴에 숨어 있던 용을 생포하였으리라.

아무튼 이때 태자가 잡혀가자, 용의 애마가 서럽게 울음을 울다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뒷날 사람들은 말의 충절에 감복하여‘말이 울었다’는 의미를 지닌 ‘마명암馬鳴庵’을 주변에 세워 충마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망국의 서러운 역사가 배태한 애달픈 설화라서, 슬며시 내 목이 탄다.

원효굴과 용피굴 사이에는 한 줄기 석간수가 흐른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가느다란 물길을 따라 거슬러 온 물고기 한 마리가 그곳에 있다. 멧을 아는 석공 하나가 물줄기를 이용해 소박하게 재주를 부린 돌샘이다. 손을 댄 듯, 아니 댄 듯 주변의 바위와 이끼랑 썩 잘 어울리도록 아주 작게 만들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대체로 원형에 가까운 샘이다. 그러나 물을 떠먹는 자리에서 보면, 날렵한 유선형 물고기 한 마리를 보는 양 싶다.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다분히 염두에 둔, 세련된 새김질이다. 그래서 절로 정다운 샘이 되었으니, 물맛 역시 탁월하다.

어느 틈엔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이곳에 들러 물을 마시고 떠나간다. 본래 나비는 영혼을 상징하는 곤충이니, 어느 목마른 영혼의방문인가? 바위에 붙어 있던 푸른 이끼가 머금고 있던 물방울을 툭툭 떨어뜨린다.

다음 주는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여섯 번째 이야기 “통천문과 암자 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